

이기는 삶

잘못된 습관 버리자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을 자는 할머니가 있었다. 어느 날 가족여행을 떠났는데 그만 수면제를 가지고 가지 않았다.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대로 여행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여행 첫 날 가족들은 신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구경을 하였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숙소에서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할머니가 의자에 앉은 채 팔이 떨어져 있는 것이다. 수면제를 먹지 않았는데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구경을 하다 보니 피곤하여 잠이 들어버린 것이었다. 덕분에 가족들은 할머니의 수면제가 없어도 무사히 가족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가족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또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을 자는 원래의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을 잔다는 의식이 박혀있었던 까닭이다. 이는 습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예화이다.



습관에 대한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커피를 마시면 잠이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 커피의 카페인 성분은 신장을 활성화시키고 또 신장은 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집중을 요하는 작업을 할 때 졸음을 이기는 용도로 커피를 즐겨 마신다. 그런데 반대로 커피를 마시면 잠이 온다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일을 할 때는 절대로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커피를 마시면 잠이 오기 때문이다. 대신에 하루일과를 끝내고 잠

을 자려고 할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커피를 한 잔씩 마시고 잔다고 한다. 이는 체질적으로 커피의 카페인 성분을 잘 분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빨리 분해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 자신을 할 때 졸음을 이기는 용도로 커피를 즐겨 마신다. 그런데 반대로 커피를 마시면 잠이 온다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일을 할 때는 절대로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커피를 마시면 잠이 오기 때문이다. 대신에 하루일과를 끝내고 잠

2018년을 맞아 승리제단 성도들은 신앙의 내실화를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21일 다시하기 자유율법 실천운

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운동이 성공하려면 각자가 승리제단에 새로 입문한 새식구로 돌아가 마음을 점검하여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타성에 젖은 습관을 고치기 위하여 결심하고 또 결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각하는 것도 잘못된 습관이다. 지각하는 사람이 꼭 지각한다. 오랜 세월 몸에 베여 고착화 된 것이다. 또한 예배시간이나 강의시간에 조는 사람은 피곤해서 졸기보다는 마음이 퍼져서 졸게 되는 경향이 더 많다.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자세가 바르고 집중력이 강한 사람은 졸지 않는다.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세를 바르게 함은 물론 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하고 대답도 크게 해야 한다.

지금 3월이니 벌써 4차 '21일 다시하기'에 들어서 있다. 아직까지 타성에 젖어버린 의식과 자연스럽게 몸에 베인 습관을 바꾸는 것을 미적거리고 있다면 안 된다.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은 큰일을 하지 못 한다. 굳은 결심을 하고 좋은 습관이 몸에 베일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만 한다. 습관을 정복하는 자가 이긴자가 되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The spirit of life, God vs The spirit of death, Satan 생명의 신, 하나님 vs 사망의 신, 마귀

마귀는 분열의 신, 곧 사망의 신이다. 그러므로 마귀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하나가 여러 개로 분열되어 나뉘어 있는 것이다.

▶ Satan is the spirit of separation, Death. Therefore, because of Satan, One became many, as we see it now.

하나님은 생명의 신이요, 마귀는 사망의 신이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떠한가?

▶ God is the spirit of Life, whereas Satan is the spirit of death. Then, how is this world?

이 세상은 생명과 사망이 공존한다. 그리고 모든 살아 있는 생명체들은 결국 죽는다.

▶ In this world, life and death coexist, and every living creature dies in the long run.

이것은 생명의 신 하나님이 사망의 신 마귀에게 정복당하여 결국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This means that the spirit of life, God is dying due to having been conquered by the spirit of death, Satan.

다시 말해서, 마귀는 하나님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하였다.

▶ In other words, Satan is dominant over God. So "For the creation eagerly awaits the revealing of the sons of God(Romans 8:19)."

만약 하나님이 마귀에게 석방되면 모든 생명체들이 사망의 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결코 썩지도 죽지도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This means that, if God were freed from Satan, all creatures would be freed from the spirit of death, and would never rot and die.*

by Alice

인사(人事)를 관리할 줄 알아야

인사가 곧, 만사(萬事)라고 하였다. 이순신은 평소 지휘관으로서 매사 솔선수범, 신상필벌, 휘하장졸과의 신뢰, 사심과 헛된 명예욕이 없음을 내비쳤다. 항상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염려했고, 평상시 아군의 장점과 왜군의 단점을 파악하여 전략 전술적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주지시켰다. 싸움에 임해서는 필생즉사 필사즉생의 정신무장을 강조, 수적 열세에 위축된 병사들의 사기양양을 위해 대장선인 이순신장군의 함선이 목숨을 걸고 적진을 향해 먼저 돌진하여 싸웠다. 이는 두려움에 떨던 아군의 동함을 이끌어 기울어가던 당시 조선의 전세를 뒤엎는 위대한 명량해전의 승리의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이순신의 인간 됬됨이와 공평무사

한 인사로 인한 부하와의 굳건한 일심동체(一心同體)가 바탕이 되어 나온 승리였다.

이순신의 승리는 천시 지리 인사의 성공의 3대 요소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적용함에 있다. 이는 과거의 전쟁만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라 현대에도 두루 적용되는 중요한 법칙이다. 예컨대 만사를 관리는 어선이나 풍작을 기원하는 농부, 대박을 꿈꾸는 자영업자도 자기의 위치와 상황 하에서 천시 지리 인사의 핵심 요소를 정확히 알고 적용하여 행동에 옮겨야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자고로 사람이 어떠한 분야에서든 성공을 꿈꾸고 미치도록 노력하는 자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룬다. 여러분의 꿈을 간절히 응원한다.*

김주호 기자

天時地理人事

천시 지리 인사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꿈꾸지만, 또 그것은 아무나 이룰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그만큼 성공과 승리의 길은 좁고 험난하여 소수만이 다다를 수 있는 좁은 길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그렇다고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간다면 말이 되는가!

그 좁은 길로 좀 더 많은 사람이, 나 자신이 들어가는 비법이나 방책 같은 것은 없을까? 왜 없겠는가. 반드시 이것만 알고 실천하면 그 성공과 승리의 관문을 통과하는 확률을 높이면서 또 무난히 통과할 것이다.

이순신장군의 명량해전을 거울삼아 우리는 "천시 지리 인사" 3요소를 어떻게 절묘하게 적용하여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 성공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다.

천시(天時)를 살필 줄 알아야

1597년 7월 칠천량전투에서 일본 수군은 조선수군을 궤멸시키고 경상도와 전라도 남해안 일대를 석권하였다. 이들은 복진하는 육군과 보조를 맞추어 수륙병진작전을 계획하였다. 조

선 연안 해로를 따라 서해안으로 북상하기 위해 경상도 하동 부근에 함선 330여 척을 집결시키고, 해남 반도 남단 어란포를 거쳐 남해와 서해의 분기점이 되는 명량수로를 통과하여 서해안으로 진출하려 하였다. 명량수로는 화원반도와 진도 사이의 좁은 수로로 조수간만 시 유속이 빠르고 암초가 많아 물길에 익숙한 사공이 아니면 통과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이순신은 바로 조수간만이 바뀔 때, 명량수로의 조수가 역류하므로 남해에서 서쪽으로 진출하려는 일본수군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노렸다. 그때 왜군의 진로를 가로막고 잔존 판옥전선 13척으로 133척 왜군을 물리쳤던 것이다.

천시란, 우주운행에 의한 춘하추동(春夏秋冬), 하늘의 맑고 흐림 비 바람 낮 어둠 밀물 썰물 등, 인간사 모든 일이 시간과 운(運) 때가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승산(勝算)할 모든 요인이 갖추어져 꼭 이루어질 시점에 다다랐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순신은 그만큼 풍부한 지식과 경험 축적을 통하여 천시를 정확히 파악했다.

지리(地理)를 살필 줄 알아야

명량해전 승리의 중요한 요충지 '울돌목'. 이순신은 1591년 2월 초, 임진왜란 발발 1년 전 진도 군수 부임 차진 도읍에 갈 때, 이 울돌목을 건너가게 되었다. 그때 울돌목의 특이한 지형과 조류를 유심히 보아두었다. 그리하여 명량해전에서 울돌목의 조류현상에 대해 완벽히 파악한다. 이순신은 왜선이 울돌목을 넘어오기 전 시간대에는 밀물이어서 노 젓기가 힘들었지만 진을 옮겨 울돌목 입구까지 나아가 왜선을 맞았고, 그 이후 전투가 개시되자 썰물을 기다려 상황을 진전시키다가 총공격으로 왜선을 격침했다. 울돌목의 좁은 수로와 조류를 심분 이용한 완벽한 전투였다.

지리란 지구상의 산천(山川), 수목(水陸), 기후(氣候), 생물(生物), 도시(都市), 인구(人口) 따위의 상태를 말한다. 또 어떤 곳의 지형이나 길 따위의 형편을 말한다. 이순신은 이러한 지리적 요건과 제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해서 할 수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꿈이 있다. 꿈이 있기에 현실 속에서 주어진 고통을 참고 이겨낸다. 꿈, 그것은 세상에서 멋지게 성공하고 매사에 승리하는 삶을 말한다. 사람에게 있어서 성공과 승리를 위해 분투하는 것은, 곧 행복한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 그토록 성공과 승리를 열망하는 것이렸다. 저마다 꿈의 크기와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무독점(無獨占)의 공평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농부는 농부로서 꿈이 있고, 어부는 어부로서 꿈이 있다. 또 도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꿈이 있다. 누구나가 황홀한 성공과 승리하는 삶을 획득하기

머리맡에 두면 참 좋은 책



라준경 지음/ 값 10,800원

라준경의 '인생이야기'

휴식 같은 시

현대인은 바쁘다. 설 새 뱀이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러다 지쳐 쓰러져 잠이 든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사이
그들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그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이제 종설 때와 장소가 필요하다.
그대의 휴식과 영혼이
잠시 쉴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

저자는 애독하는 시들 중에서
한 뽕을 뽑아내
자신의 감성을 녹여
일상사에 적용하여 글을 썼다.
저자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독자들의 직진 영혼에
한층의 시원한 바람이 될 것이다.
잠들 무렵 그대 옆에 이 한 권의 책을 놓아두라.
그러면 그대는 저자가 말한 쉼 곳으로
인도되리라.

도서출판 해인



지은이 _ 라준경
경북 대구 출생 (1970)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회복지학 수료
현) 대구 승리제단 승사
국제 신인류 문화학회 임원